

HOISUO

자
패
쥬
기
어
무
이
수
기
강
파
더
매
예

2023 학년도 수능 대비

홀수 국어

기 / 출 / 분 / 석 / 서

선택 언어와 매체

▶ 문제

HOLSOO

홀수 국어

기출 분석서 언어와 매체

1판 1쇄 발행일 2021년 12월 15일

발행인 이신열

발행처 주식회사 도서출판 홀수

출판사 신고번호 제374-2014-0100051호

ISBN 979-11-89939-69-4

홈페이지 www.holsoo.com

- 이 책의 저작권은 주식회사 도서출판 홀수에 있으므로 무단으로 복사, 복제할 수 없습니다.
-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구입처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 교재 및 기타 문의 사항은 이메일(help@holsoo.com)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수를 만든 사람들

출판기획 윤지숙 장혜진 이수현 김주현 박효비 정경아 서미리

디자인 유초아 이재욱

목 차

INTRO

수능 언어와 매체를 실전적으로 분석하는 법

문제 책 해설 책

2022학년도 수능

P.014 P.006

PART 1

언어와 매체 기출 분석 훈련

문제 책 해설 책

2022학년도 10월 학평

P.022 P.022

2022학년도 9월 모평

P.030 P.032

2022학년도 7월 학평

P.036 P.043

2022학년도 6월 모평

P.042 P.053

2022학년도 4월 학평

P.048 P.063

2022학년도 3월 학평

P.058 P.074

2022학년도 예시문항

P.064 P.084

PART 2

5개년 언어(문법) 기출 분석 훈련

문제 책 해설 책

2021학년도 수능

P.074 P.096

2021학년도 9월 모평

P.076 P.101

2021학년도 6월 모평

P.078 P.105

2020학년도 수능

P.080 P.109

2020학년도 9월 모평

P.084 P.115

2020학년도 6월 모평

P.086 P.120

2019학년도 수능

P.088 P.125

2019학년도 9월 모평

P.090 P.130

2019학년도 6월 모평

P.094 P.135

2018학년도 수능

P.096 P.140

2018학년도 9월 모평

P.100 P.146

2018학년도 6월 모평

P.102 P.150

2017학년도 수능

P.104 P.154

2017학년도 9월 모평

P.106 P.159

2017학년도 6월 모평

P.110 P.162

PART 3

개정 수능 형식 모의고사 훈련

문제 책 해설 책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모의고사 SET 1

P.114 P.170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모의고사 SET 2

P.118 P.173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모의고사 SET 3

P.122 P.176

PLUS

문제 풀이를 위한 핵심 개념 학습

문제 책

언어 핵심 개념

P.128

매체 핵심 개념

P.144

새롭게 바뀐 수능 국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새로운 수능 국어는 2022학년도 시험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

국어는 공통과목(문학 + 독서) +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or 언어와 매체) 구조가 도입됩니다.

2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기 때문에 두 개의 시험지를 받게 됩니다.

3

총 45문항 중, 공통과목은 34문항(문학 17문항, 독서 17문항)이며, 선택과목은 11문항입니다.

개정 수능 국어	공통과목 (문학 + 독서)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or 언어와 매체)	총합
문항 수	34문항 (문학 17문항, 독서 17문항)	11문항	45문항
배점	76점	24점	100점
시험 시간	80분		

수능 국어가 새롭게 바뀌었으니, 이전의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무용지물일까요?

아닙니다! 수능 시험의 형식은 바뀌었지만, 수능 국어 시험이 수험생에게 요구하는 학습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화된 형식과 내용에 익숙해지되,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시험의 성격은 기출 분석을 통해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출을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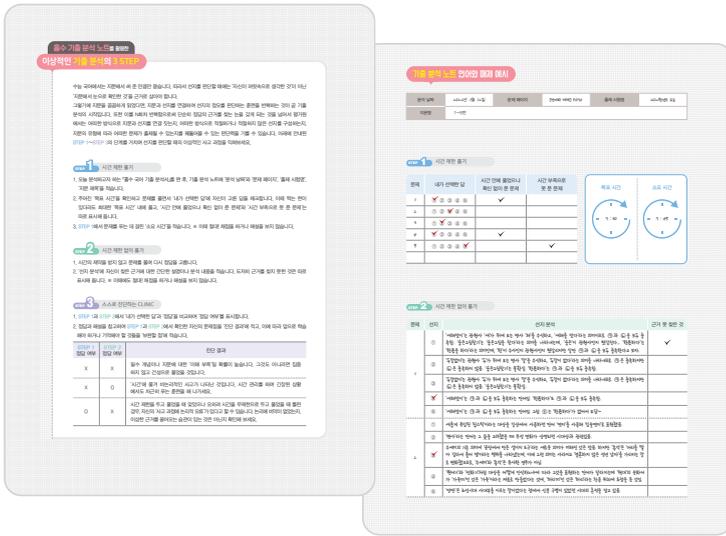
기출 분석을 통해

- 1 수능 국어 시험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2 평가원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물어보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3 평가원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들의 의미를 알고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 4 정답을 선택할 때 필요한 명확한 근거를 찾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 5 문제를 틀리는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수능 국어 기출 공부 가능하도록!
1, 2, 3회독 ... 기출 분석의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도서출판 홀수 홈페이지(www.holsoo.com)에서
 홀수 기출 분석 노트 PDF를
 내려받아 활용해 보세요.

홀수 기출 분석 노트



✓ 문제의 답과 근거를 체크할 수 있는 기출 분석 노트!
 기출 분석 노트를 활용하면 수능 국어 기출 분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홀수 기출 분석 노트만 따라 하면, 제대로 된 기출
 분석 가능!
 기출 분석의 중요성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STEP별로 나누어
 분석 단계를 안내합니다.
 이대로 따라 한다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기출 문제
 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 풀이를 통해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진단
 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홀로 공부하는, 제대로 된 기출 분석법

시간 제한 풀기

1 STEP

STEP 1	시간 제한 풀기		
문제	내가 선택한 답	시간 안에 풀었으나 확신 없이 푼 문제	시간 부족으로 못 푼 문제
1	① ② ③ ④ ⑤	✓	
2	① ② ③ ④ ⑤		

홀수 기출 분석집 문제 책에 표시되어 있는 권장 목표 시간에 맞춰 문제를 푼다. 찍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 내에 풀고, 확신 없이 푼 문제와 시간 제한을 넘긴 문제는 따로 표시해 둔다. 아직 채점은 하지 않습니다.

시간 제한 없이 풀기

2 STEP

STEP 2	시간 제한 없이 풀기	
문제	선지	선지 분석
1	①	'새해맞이'는 관형사 '새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고, '새해'를 수식하고, '숨은그림찾기'는 '숨은그림을 찾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한몫을 하다'라는 의미인데, '한이 수사인지 관형사인지 헷갈리지'

같은 세트의 문제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분석해 봅니다. 지문을 분석하고 모든 선지의 근거를 적습니다. 이때에도 채점은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진단하는 CLINIC

3 STEP

STEP 3	스스로 진단하는 CLINIC		
문제	정답	STEP 1	STEP 2
		내가 선택한 답	정답 여부
1	①	① ② ③ ④ ⑤	○ △ ×
2	②	① ② ③ ④ ⑤	○ △ ×

채점을 하고 STEP1과 STEP2의 정답 여부에 따라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합니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기출 분석의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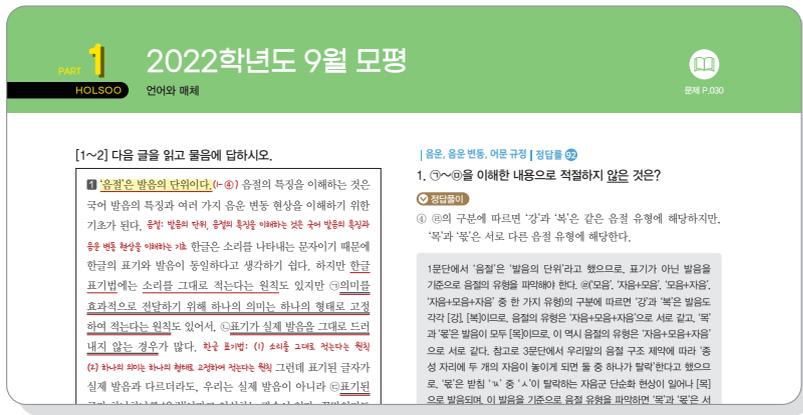
4 STEP

*외독	선택 과목
1~2회독(1학기)	① 문제 풀이를 위한 핵심 개념 학습 ② 모든 선지의 근거를 꼼꼼하게 확인 ③ STEP 1~STEP 3의 과정 빠짐없이 시행
3회독 이상(2학기)	① 이해가 부족한 핵심 개념 중심으로 학습 ② 선지는 정답 중심으로 근거 확인 ③ STEP 2~STEP 3 중심으로 시행

STEP1~STEP3의 과정을 밟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시기나 학습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절하여 공부합니다.

구성과 특징

- 첫째**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문제 책과 해설 책으로 분권하였습니다.
- 둘째** 언어와 매체 평가원, 교육청 기출과 최근 5개년 언어(문법) 평가원 기출을 수록하여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춘 지문 접근법과 문제 풀이법을 안내합니다.
- 셋째** 친절하고 자세한 정·오답 풀이와 심화 보충 해설을 통해 혼자서도 완벽한 기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넷째**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는 핵심 개념과 실전 대비 자체 제작 모의고사를 수록하여 종합적인 수능 대비 학습이 가능합니다.



▶ 친절하고 자세한 지문 분석

지문 및 문제 전문을 해설에도 수록하여 지문에 직접 근거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정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형광펜 처리를 하여 정답의 근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문향, 전 선지 꼼꼼하게 해설

친절하고 자세한 정·오답 풀이와 심화·보충 해설을 통해 혼자서도 완벽한 기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매체의 언어적 특성 | 정답률 ⑤

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률 100%

③ ㉠: 연결 어미 '-어'를 사용하여 사회 참여 활동 기회에 대한 앞 절의 내용이 뒤 절 내용의 목적에 해당함을 나타내고 있다.

㉡의 '-어'는 까닭이나 근거 따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사회 참여 활동 기회 부족에 대한 앞 절의 내용이 사회 참여가 확산되지 못한다는 뒤 절 내용의 목적이 아니라 원인에 해당함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률 0%

① ㉠: 의문형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글의 화제를 드러내는 제목을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은 글의 화제를 드러내는 제목으로, 의문형 종결 어미 '-니'를 사용하여 제목을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 부사 '무엇'을 사용하여 청소년도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높음을 강조하고 있다.
 ㉣의 '무엇'은 그 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음을 나타내는 말로, 이를 사용하여

매체 자료 제작 | 정답률 ②

9. 다음의 카드 뉴스 보완 방향을 고려할 때, '카드 A', '카드 B'의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카드 뉴스 보완 방향: 우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에 활용하기 위해 (나)에 카드 A, B를 추가

카드 A		카드 B	
왜 사회 참여 활동을 하지 않나요?		청소년 사회 참여 어렵지 않습니다.	
응답 내용	비율(%)	주변의 문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4-②)
사회 참여가 어렵게 느껴져서	63		
:	:		



모두의 질문

• 5-③번

Q: '말씀'은 ㉠에, '제'는 ㉡에 해당하는 어휘이니 ③번은 ㉠과 ㉡이 모두 사용된 문장이 맞지 않나요?

A: '제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에서 그 자체에 높임 혹은 낮춤의 의미가 담겨 있는 어휘로는 '제'와 '말씀'을 들 수 있다. 먼저 '제'는 '저'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줄어드는 말인데, 이때 '저'는 '말하는 이가 뒷사람이나 그다지 가깝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이므로,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모두의 질문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Q&A 게시판에서 학생들이 많이 한 질문들과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애매한 내용이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들잡기

- ① 비선형: 디지털 매체의 특성 중 하나. 원하는 내용을 선별하여 원하는 순서대로 볼 수 있는 성질.
- ③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음성 언어, 문자 언어와 같은 개별적인 언어 양식과 달리, 매체 언어는 문자 언어, 시각 언어, 영상 언어 등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만들어지는 특성을 지님.
- ④ 쌍방향: 한쪽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서로 향하는 것. 정보 전달의 상호작용이 가능함.



가들잡기

수능 국어의 기반을 탄탄히 하기 위해 발문이나 선지에 쓰인 기본적인 개념어 및 어려운 어휘의 뜻을 풀이하였습니다.



문제적 문제

• 7-⑤번

학생들이 정답 이외에 가장 많이 고른 선지가 ⑤번이다. 보조 용언 '보다'가 '시험 삼아 하는' 행동임을 의미한다는 진술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또한 '보조사' '는'이 주격 조사인 '이'나 '가' 대신 많이 쓰이므로, 순간적으로 주어라고 판단하여 ③번이 적절한 진술이라고 보았을 수도 있다.

매력적 오답인 ⑥번의 경우, '앱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의 '보다'는 '어떤 일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다. 참고로 이때의 '시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험 즉 '재능이나 신력 따위를 인정한 절차'에 따라



문제적 문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심화 분석합니다. 정답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매력적 오답'을 집중적으로 살펴봄, 수험생이 흔히 갖기 쉬운 사고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모의고사 문제지

SET 1

국어 영역

1

해설 P.170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국어에서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를 말한다. 파생어는 접사가 어근의 앞에 결합할 수도 있고, 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할 수도 있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이와 관련된 문법적 특징을 살펴보자.

- (1) 만행, 맹손, ㉠엇나단
- (2) 장난꾸러기, 욕심쟁이, ㉡이발사
- (3) 박이, ㉢웃음, ㉣술거름
- (4) 살리다, ㉤잡혔다

(1)~(4)는 모두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1)의 '만행'

2.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 물에 빠진 고양이가 살았다.
- ㉡ 개가 물에 빠진 고양이를 살렸다.
- ㉢ 삼촌은 드디어 물고기를 잡았다.
- ㉣ 물고기가 드디어 삼촌에게 잡혔다.
- ㉤ 아이가 숙제를 하려고 연필을 잡았다.
- ㉥ 알마가 아이에게 연필을 잡혔다.

① ㉠의 주어가 ㉡에서 목적어로 바뀐 것은 사동 접사 '-리-'가 결합한 파생어의 영향이겠군.
 ㉢의 주어와 목적어가 ㉤에서 각각 부사어와 주어로 바뀌 경우 파동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모의고사 SET 1

정답과 해설

문제 P.114

1. ㉠

㉠(엇나단)은 어근인 동사 '엇-' 뒤에 접사 '-음'이 결합한 파생어이고, ㉡(이발사)은 어근인 동사 '잡-' 뒤에 접사 '-하-'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한편 동원은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동사와 형용사를 이르는 말이다. ㉢은 동사 변화 없이 그대로 동사가 되어 문장에서 용언으로 쓰일 수 있으나, ㉣은 파생어가 되면서 동사가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었으므로, 문장에서 용언으로 쓰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엇나단)은 어근 '나단'의 앞에 '거름' 또는 '겹쳐'의 뜻을 더하는 접사 '엇-'이 결합한 것이고, ㉡(이발사)은 어근 '이발' 뒤에 '직업'의 뜻을 더하는 접사 '-사'가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과 ㉡은 접사가 어근에 결합한 위치가 서로 다르다.

[오답 해설]

① ㉠(물에 빠진 고양이가 살았다.)에서는 서술어로 '살았다'가 쓰였고, ㉡(개가 물에 빠진 고양이를 살렸다.)에서는 서술어로 어근 '살-'에 사동 접사 '-리-'가 결합한 사동사 '살렸다'가 쓰였다. [A]를 통해 피동 접사나 사동 접사가 문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사동 접사 '-리-'가 결합한 파생어인 '살렸다'의 영향으로 문장의 구조가 바뀌면서 ㉢의 주어인 '고양이'가 ㉤에서 목적어 '고양이'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삼촌은 드디어 물고기를 잡았다.)에서는 서술어로 '잡았다'가 쓰였고, ㉣(물고기가 드디어 삼촌에게 잡혔다.)에서는 서술어로 '잡다'의 어근에 접사 '-하-'가 결합한 피동사 '잡혔다'가 쓰였다. [A]를 통해 피동 접사나 사동 접사가 문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동 접사 '-하-'가 결합한 파생어인 '잡혔다'의 영향으로 문장의 구조가 바뀌면서 ㉤의 주어인 '삼촌'은 문장에서 '물고기'로 바뀌어 어근 '잡다'의

▶ 개정 수능 형식 모의고사로 실전 감각 익히기

실제 시험지 형식의 모의고사를 풀어봄으로써 실전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과 평가원 모의고사의 최신 경향을 반영한 자체 제작 모의고사를 수록하였습니다.

I 음운, 음운 변동

- 음운: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 볼 vs. 물: 'ㅂ'과 'ㅁ'의 차이로 뜻이 구별되므로 'ㅂ'과 'ㅁ'은 각각 하나의 음운
- 음운의 분류
 - ┌ 분절 음운(음소): 자음, 모음
 - └ 비분절 음운(음소): 창단, 고저, 세기

1. 자음과 모음

① 자음(19개): 소리 낼 때, 목 안 또는 입 안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두음
		(두 입술)	(잇몸-혀끝)	(천장-잇몸)	(머리안천장-혀뒤)	(목젖)
파열음	예사소리(평음)	ㅂ	ㄷ		ㄱ	
	된소리(경음)	ㅃ	ㄸ		ㄲ	
무성음 (안울림 소리)	가센소리(경음)	ㅍ	ㅌ		ㅋ	
	예사소리(평음)			ㅈ		
	파찰음	ㅍ		ㅊ		

▶ 완벽한 실전 대비를 위한 핵심 개념 다지기

수능 국어 언어와 매체 영역 문제를 정확히 풀기 위해서는 먼저 필수적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언어와 매체의 핵심 개념을 항목별로 보기 좋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0303 매체 핵심 개념

I 매체의 본질

1. 매체의 유형과 특성

① 매체의 개념: 발신자와 수신자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혹은 경로

② 매체의 유형과 특성

유형	특성
인쇄 매체	•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사진, 그림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함께 활용함 ㉠ 책, 신문 등 • 인쇄 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대량 생산 및 유통을 가능하게 함 •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발자와 독자가 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음
음성 매체	• 전자 기술의 발달로 등장하였으며 소리(음향), 음성을 대량으로 전송하며,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르지만 시각적 정보를 처리할 수 없음 ㉡ 라디오

3주 완성 학습 PLAN

✓ 체크하세요

1 주차	Day	문제 책 페이지	지문명	목표 시간	학습 체크		
					1회독	2회독	3회독
Day 01	P.128	언어 핵심 개념					
	P.144	매체 핵심 개념					
Day 02	P.014	2022학년도 수능	15:00				
Day 03	P.022	2022학년도 10월 학평	15:00				
Day 04	P.030	2022학년도 9월 모평	15:00				
Day 05	P.036	2022학년도 7월 학평	15:00				
Day 06	P.042	2022학년도 6월 모평	15:00				
Day 07		복습					

2 주차	Day	문제 책 페이지	지문명	목표 시간	학습 체크		
					1회독	2회독	3회독
Day 08	P.048	2022학년도 4월 학평	15:00				
Day 09	P.058	2022학년도 3월 학평	15:00				
Day 10	P.064	2022학년도 예시문항	15:00				
Day 11	P.074	2021학년도 수능	07:30				
	P.076	2021학년도 9월 모평	07:00				
Day 12	P.078	2021학년도 6월 모평	07:00				
	P.080	2020학년도 수능	07:30				
Day 13	P.084	2020학년도 9월 모평	07:00				
	P.086	2020학년도 6월 모평	07:00				
Day 14		복습					

3 주차	Day	문제 책 페이지	지문명	목표 시간	학습 체크		
					1회독	2회독	3회독
Day 15	P.088	2019학년도 수능	07:00				
	P.090	2019학년도 9월 모평	07:00				
	P.094	2019학년도 6월 모평	07:00				
Day 16	P.096	2018학년도 수능	07:00				
	P.100	2018학년도 9월 모평	07:00				
	P.102	2019학년도 6월 모평	07:00				
Day 17	P.104	2017학년도 수능	07:00				
	P.106	2017학년도 9월 모평	07:00				
	P.110	2017학년도 6월 모평	07:00				
Day 18	P.114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모의고사 SET 1	15:00				
Day 19	P.118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모의고사 SET 2	15:00				
Day 20	P.122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모의고사 SET 3	15:00				
Day 21		복습					

🔊 1회독 3주 완성 프로그램 - 2, 3회독을 할 때에는 Day2~3일 분량을 묶어 하루치로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INTRO



수능
언어와 매체를
실전적으로
분석하는 법



2022학년도 수능 언어와 매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수능 국어 시험의 선택과목 중 하나인 '언어와 매체'는 총 11문제로 출제되는데, 일반적으로 35번~39번까지는 언어(문법) 영역, 40번~45번까지는 매체 영역 문제로 구성 돼. 언어(문법)의 경우, ① 음운의 체계와 변동, ② 품사와 단어의 특성, ③ 단어의 짜임과 새말 형성 과정, ④ 단어의 의미 관계, ⑤ 문장의 짜임, ⑥ 문법 요소, ⑦ 담화, ⑧ 시대 변화에 따른 국어 자료의 차이(국어사), ⑨ 국어 규범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 다음으로 매체에서는 ①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② 매체 자료의 제작 과정과 수정 결과의 적절성, ③ 매체 자료의 생산과 수용 과정, ④ 매체 자료에 나타난 언어의 특성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되고는 하지. 언어(문법) 영역에서는 기본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반복 학습이 아주 중요한데, 매체 영역에서도 발문이나 선지에 자주 쓰이는 기본 개념들은 숙지해 두는 것이 필요해. 이를 참고하면서 2022학년도 수능 언어와 매체 문제를 풀어보자!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서는 일반 어휘처럼 문법 형태소에서도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로 쓰이거나 여러 형태가 하나의 의미로 쓰이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전자로는 현대 국어에서 명사 '높이'에 쓰인 명사 파생 접사 '-이'와 부사 '높이'에 쓰인 부사 파생 접사 '-이'를 예로 들 수 있다. 명사 파생 접사 '-이'는 여러 의미로 쓰인다. 예컨대 '높이'에서는 '…하는 행위'의 의미를, '구두담이'에서는 '…하는 사람'의 의미를, '연필깎이'에서는 '…하는 데 쓰이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낸다. 후자로는 현대 국어의 명사 파생 접사 '-이'와 '-음'을 예로 들 수 있다.

중세 국어에서도 명사 파생 접사 '-이'와 부사 파생 접사 '-이'가 존재하였다. 가령, 현대 국어의 '길이'와 마찬가지로 '기리(길- + -이)'의 '-이'는 형용사 어간에 붙어 명사도 만들고 부사도 만들었다. 또한 '-이'는 '사리(살- + -이)'처럼 동사 어간에 붙어 '…하는 행위'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하는 사람', '…하는 데 쓰이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중세 국어에서 명사 파생 접사 '-이'처럼 용언 어간에 붙는 명사 파생 접사 '-의'도 쓰였는데, 이 '-의'는 '-이'와 달리 부사는 파생하지 않았다. 또한 접사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이'로 쓰였는데, 접사 '-이'는 중세 국어에서 'ㅣ' 모음이 양성 모음도 아니고 음성 모음도 아니어서 모음 조화는 무관하게 결합하였다.

- ┌ 너비(넙- + -의)도 7티 하고 [넓이도 같이 하고]
- └ 노피(높- + -이) 다섯 자히러라 [높이가 다섯 자였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는 '의'가 앞 체언에 붙어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로 쓰이기도 했다. 관형격 조사는 평칭의 유정 체언 뒤에 쓰였고, 부사격 조사는 서술어와 호응하여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에서 쓰였다. 그런데 이들 '의'도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이'로 쓰였다.

- ┌ 버미(범 + 의) 빼나 [범의 빼나]
- └ 사루미(사롭 + 의) 무레 [사람의 무리에]
- ┌ 무퓌(물 + 의) 둔니논 [물에 다니는]
- └ 바미(밤 + 의) 나디 아니호느니 [밤에 나가지 아니하니]

1. 뒷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책꽂이'에서 '-이'는 '…하는 행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이다.
- ② 현대 국어 '높이'에서의 '-이'는 중세 국어 '사리'에서의 '-이'와 달리 '…하는 사람'의 의미로 쓰인다.
- ③ 현대 국어 '길이'처럼 중세 국어 '기리'도 명사와 부사로 쓰였다.
- ④ 중세 국어에서 접사 '-이'가 붙어 파생된 단어는 두 가지 품사로 쓰였다.
- ⑤ 중세 국어에서 체언에 조사 '의'가 붙은 말은 관형어나 부사어로 쓰였다.

PART

1

언어와 매체
기출 분석 훈련

[6~8] (가)는 인터넷 블로그이고, (나)는 텔레비전 생방송 뉴스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환경 파수꾼 '구르미'의 블로그

읽을거리 생각 나누기 자료 더하기 일상 기록

북극곰은 지구 온난화가 싫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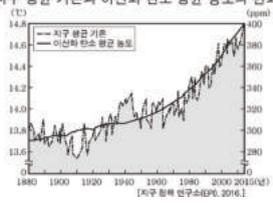
구르미
2021.02.06 12:10

여러분은 '겨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추위? 얼음? 북극?
오늘은 다큐멘터리 '북극곰의 오늘과 내일'을 보고 든 생각에 대해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자 해요.
지구 온난화로 북극곰의 삶의 터전이 줄어들고 있어요.



옆의 사진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북극곰의 오늘과 내일'에서는 옆의 사진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북극곰이 멸종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북극곰을 힘들게 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과 이산화 탄소 농도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산화 탄소를 배출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일상에서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대체 에너지 개발하기 등이 있어요.



지구 평균 기온과 이산화 탄소 평균 농도의 변화
(T: 온도, ppm: 이산화 탄소 농도)
[지구 환경 연구소(IEA), 2016.]



이 영상은 '북극곰의 오늘과 내일' 홍보 영상인데, 다큐멘터리를 찾아서 시청하시면 북극곰의 아픔을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자료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지구_온난화 #북극곰_멸종_위기 #이산화_탄소_배출_줄이기

댓글 7 공감 16

사랑이 북극곰에게 미안하네요. 이제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게 좋겠죠? ①

↳ **구르미** 그럼요. 저도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로 결심했어요.

초록콩 저도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www.ooo.go.kr 여기서 이산화 탄소 배출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②

↳ **구르미** 방문 감사합니다. 저도 주변 분들과 공유할게요.

밤들이 대체 에너지 개발하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 **구르미** 감사해요. 수정할게요.

몽돌이 그래프의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사진 속 작은 얼음 조각마저 사라져 북극곰은 살 곳이 없어지고 말겠어요. ㅠ.ㅠ

(나)



진행자: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전국에 두 달째 가뭄이 이어지면서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면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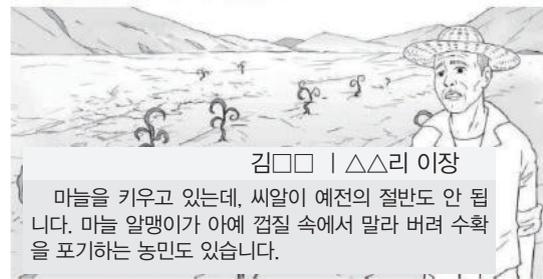
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현장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 기자: 취재한 자료 영상을 보시면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것이 저수지 바닥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진행자: 가뭄이 이렇게나 심각하군요. 그에 따라 피해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윤 기자: 가뭄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농민 한 분을 만나 봤습니다. 인터뷰 영상 보시겠습니다.



6.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정보 생산자 간에 먼 대면 소통을 통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정보 수용자를 고려하여 격식을 갖춘 말투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특정 기호를 앞에 붙여 열거한 말들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핵심 어구를 파악할 수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정보 수용자를 특정인으로 한정지어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정보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PART

3

개정 수능 형식
모의고사 훈련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서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를 말한다. 파생어는 접사가 어근의 앞에 결합한 것도 있고, 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한 것도 있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이와 관련된 문법적 특징을 살펴보자.

- (1) 만형, 맨손, ㉠덧나다
- (2) 장난꾸러기, 욕심쟁이, ㉡이발사
- (3) 먹이, ㉢웃음, ㉣즐거움
- (4) 살리다, ㉤잡히다

(1)~(4)는 모두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1)의 ‘만형’은 어근 ‘형’의 앞에 ‘만’의 뜻을 더하는 접사 ‘만-’이 결합한 것이고, ‘맨손’과 ‘덧나다’도 이와 같은 구성이다. (2)는 (1)과 달리 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한 파생어이다. ‘장난꾸러기’는 어근 ‘장난’의 뒤에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꾸러기’가 결합한 것이고, ‘욕심쟁이’와 ‘이발사’도 이와 같은 구성이다. (3)과 (4)의 파생어는 어근이 동사 또는 형용사인 용언이다. 먼저 (3)에 사용된 접사들은 (1)과 (2)에 사용된 접사들과 달리 파생어를 형성하면서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먹이’는 ‘먹다’라는 동사의 어근에 접사 ‘-이’가 결합하여 명사가 된 것이고, ‘웃음’과 ‘즐거움’도 파생어가 되면서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달라졌다.

(4)의 ‘살리다’는 어근에 사동 접사 ‘-리-’가 결합한 파생어로,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모두 동사로 동일하지만, 주동사 ‘살다’가 쓰인 문장의 구조와 사동사 ‘살리다’가 쓰인 문장의 구조는 서로 다르다. 한편 ‘잡히다’는 동일한 형태로 [A] ‘잡다’의 피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잡다’의 사동사로 쓰이기도 한다. 피동사 ‘잡히다’가 쓰인 피동문은 ‘잡다’가 쓰인 능동문과 대응되고, 사동사 ‘잡히다’가 쓰인 사동문은 ‘잡다’가 쓰인 주동문과 대응된다. 또한 피동사 ‘잡히다’가 쓰인 문장과 사동사 ‘잡히다’가 쓰인 문장의 구조 역시 서로 차이가 난다.

1. 윗글을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접사가 어근에 결합한 위치가 서로 다르다.
 - ② ㉠과 ㉢은 접사의 결합이 품사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③ ㉡과 달리, ㉢은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여 품사가 바뀌었다.
 - ④ ㉢과 ㉣은 동사인 어근 뒤에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로 문장에서 용언으로 쓰일 수 있다.
 - ⑤ ㉢과 달리, ㉣은 어근에 결합한 접사가 문장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_____ <보기> _____

- ㉠ 물에 빠진 고양이 살았다.
- ㉡ 개가 물에 빠진 고양이 살렸다.
- ㉢ 삼촌은 드디어 물고기 잡았다.
- ㉣ 물고기가 드디어 삼촌 잡혔다.
- ㉤ 아이가 숙제를 하려고 연필 잡았다.
- ㉥ 엄마가 아이에게 연필 잡혔다.

- ① ㉠의 주어가 ㉡에서 목적어로 바뀐 것은 사동 접사 ‘-리-’가 결합한 파생어의 영향이겠군.
- ② ㉢의 주어와 목적어가 ㉣에서 각각 부사어와 주어로 바뀐 것은 피동 접사 ‘-히-’가 결합한 파생어의 영향이겠군.
- ③ ㉣의 ‘잡혔다’와 ㉤의 ‘잡혔다’에 쓰인 ‘-히-’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접사에 해당하겠군.
- ④ ㉤의 ‘잡았다’는 주어의 의지로 동작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 ㉥의 ‘잡혔다’는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됨을 나타내는군.
- ⑤ ㉠은 사동문에 대응되는 주동문에, ㉢은 피동문에 대응되는 능동문에 해당하겠군.

3.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_____ <보기> _____

선생님: 음운 변동의 결과는 음운의 개수에 변화를 주기도 해요. <자료 1>을 바탕으로, <자료 2>를 탐구하여 발표해 볼까요?

<자료 1> 음운 변동의 유형과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 변화

유형	설명	음운 개수
㉠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0
㉡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1
㉢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현상	+1
㉣	두 음운이 합쳐져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1

<자료 2>

- 물은 99도에서 끓지[끓치] 않는다.
- 나는 급히 구급약[구급약] 상자를 꺼냈다.
- 하나도 빠짐없이 날날이[난나치] 조사해라.
- 그 사람은 불여우[불려우]라는 별명이 있다.
- 눈으로 방바닥을 훑다[훑따] 바늘을 발견했다.

학 생: _____ [가] _____

- ① ‘끓지[끓치]’에는 ㉠과 ㉡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었어요.
- ② ‘구급약[구급약]’에는 ㉢과 ㉣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늘었어요.
- ③ ‘날날이[난나치]’에는 ㉠과 ㉡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었어요.
- ④ ‘불여우[불려우]’에는 ㉣만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늘었어요.
- ⑤ ‘훑다[훑따]’에는 ㉢과 ㉣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었어요.

PLUS



문제 풀이를
위한
핵심 개념 학습

I 음운, 음운 변동

- 음운: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예 불 vs. 물: 'ㅂ'과 'ㅁ'의 차이로 뜻이 구별되므로 'ㅂ'과 'ㅁ'은 각각 하나의 음운
- 음운의 분류
 - 분절 음운(음소): 자음, 모음
 - 비분절 음운(운소): 장단, 고저, 세기

1. 자음과 모음

① 자음(19개): 소리 낼 때, 목 안 또는 입 안에서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양순음 (두 입술)	치조음 (윗잇몸-혀끝)	경구개음 (센입천장-혓바닥)	연구개음 (여린입천장-혀뒤)	후두음 (목청)
무성음 (안울림 소리)	파열음	여사소리(평음)	ㅂ	ㄷ		ㄱ	
		된소리(경음)	ㅃ	ㄸ		ㄲ	
		거센소리(격음)	ㅍ	ㅌ		ㅋ	
	파찰음	여사소리(평음)			ㅈ		
		된소리(경음)			ㅉ		
		거센소리(격음)			ㅊ		
마찰음	여사소리(평음)		ㅅ			ㅎ	
	된소리(경음)		ㅆ				
유성음 (울림 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 비음: 입 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 유음: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

② 모음(21개): 소리 낼 때, 장애를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나오는 소리

- 단모음(10개): 소리 낼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

혀의 위치		전설 모음		후설 모음	
입술 모양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혀의 높이	고모음	ㅣ	ㅍ	ㅡ	ㅍ
	중모음	ㅑ	ㅕ	ㅓ	ㅑ
	저모음	ㅓ	ㅗ	ㅓ	

- 전설 모음 / 후설 모음: 혀의 최고점이 입 안의 앞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모음 / 혀의 최고점이 입 안의 뒤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모음
- 평순 모음 / 원순 모음: 입술을 평평하게 펴서 발음하는 모음 /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하는 모음

- 이중 모음(11개): 소리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는 모음

ㅜ계 이중 모음	ㅜ, ㅠ, ㅡ, ㅝ, ㅞ, ㅟ
ㅛ/ㅠ계 이중 모음	ㅛ, ㅜ, ㅠ, ㅟ
'ㄱ'의 경우에는 앞의 'ㅡ'가 반모음인지, 뒤의 'ㅣ'가 반모음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음	ㄱ

TOPI

빠른
문
어
기
출
판
서

빠른 정답 찾기

INTRO. 수능 언어와 매체를 실전적으로 분석하는 법

문제 책 페이지	해설 책 페이지	지문명	문제 번호					
			1. ⑤	2. ②	3. ②	4. ①	5. ⑤	6. ④
P.014	P.006	2022학년도 수능	7. ③	8. ④	9. ④	10. ⑤	11. ③	



[1~5] 언어(문법)

언어(문법)는 개정 수능 이전에는 11번~15번에 출제되었는데,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선택과목인 '언어와 매체'의 35번~39번에 등장해. 하지만 문항 번호만 바뀌었을 뿐 형식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출제 경향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 지문을 바탕으로 푸는 문제와 단독형 문제의 유형도 기존과 비슷하게 출제되었는데, 이는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언어(문법) 지식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따라서 언어(문법)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념을 정확히 알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1~2]의 지문은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로 쓰이는 경우와 여러 형태가 하나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의 문법 형태소의 예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어. 지문에 등장한 개념과 예시가 많지만, '명사 파생 접사, 부사 파생 접사, 모음 조화,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등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지문을 읽을 때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언어(문법) 영역은 수능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념 학습이 무엇보다 중요해. 그러니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여 빈틈없이 개념 학습을 해 두자!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국어에서는 일반 어휘처럼 문법 형태소에서도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로 쓰이거나 여러 형태가 하나의 의미로 쓰이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가령, 전자(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로 쓰이는 경우)로는 현대 국어에서 명사 '높이'에 쓰인 명사 파생 접사 '-이'와 부사 '높이'에 쓰인 부사 파생 접사 '-이'를 예로 들 수 있다. 명사 파생 접사 '-이'는 여러 의미로 쓰인다. 예컨대 '높이'에서는 '…하는 행위'의 의미(1-②)를, '구두담이'에서는 '…하는 사람'의 의미를, '연필깎이'에서는 '…하는 데 쓰이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낸다. (1-①) 후자(여러 형태가 하나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로는 현대 국어의 명사 파생 접사 '-이'와 '-음'을 예로 들 수 있다. 문법 형태소의 형태 및 의미 <현대 국어> (1)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로 쓰이는 경우: 명사 파생 접사 '-이', 부사 파생 접사 '-이' (2) 여러 형태가 하나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 명사 파생 접사 '-이', '-음'

2 중세 국어에서도 명사 파생 접사 '-이'와 부사 파생 접사 '-이'가 존재(2-③, ④)하였다. 가령, 현대 국어의 '길이'와 마찬가지로 '기리(길- + -이)'의 '-이'는 형용사 어간에 붙어 명사도 만들고 부사도 만들었다. 또한 '-이'는 '사리(살- + -이)'처럼 동사 어간에 붙어 '…하는 행위'의 의미를 나타내기도(1-②, 2-④) 하였으나, '…하는 사람', '…하는 데 쓰이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중세 국어> (1)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로 쓰이는 경우: 접사 '-이' ① 형용사 어간에 붙어 명사 파생 ② 형용사 어간에 붙어 부사 파생 ③ 동사 어간에 붙어 '…하는 행위'의 의미를 나타냄 ('…하는 사람', '…하는 데 쓰이는 도구'의 의미 X)

3 중세 국어에서 명사 파생 접사 '-이'처럼 용언 어간에 붙는 명사 파생 접사 '-의'(2-②)도 쓰였는데, 이 '-의'는 '-이'와 달리 부사는 파생하지 않았다. (1-③, ④) 또한 접사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이'로 쓰였는데, (1-④, 2-②) 접사 '-이'는 중세 국어에서 'ㅣ' 모음이 양성 모음도 아니고 음성 모음도 아니어서 모음 조화와는 무관하게 결합(2-③, ④)하였다.

<중세 국어> (2) 여러 형태가 하나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 명사 파생 접사 '-이'(부사 파생 0, 모음 조화 무관) VS. 명사 파생 접사 '-이/-의'(부사 파생 X, 모음 조화 0)

너비(넙- + -의(음성 모음 뒤, 명사 파생 접사))도 7티 하고
[넓이도 같이 하고]
노피(높- + -이(양성 모음 뒤, 명사 파생 접사)) 다섯 자히러라
[높이가 다섯 자였다]

4 한편, 중세 국어에서는 '의'가 앞 체언에 붙어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로 쓰이기도 했다. (1-⑤) 관형격 조사는 평칭의 유정 체언 뒤(2-⑤)에 쓰였고, 부사격 조사는 서술어와 호응하여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에서 쓰였다. (2-①) 그런데 이들 '의'도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이'로 쓰였다. (2-①, ⑤) <중세 국어> (1) 하나의 형태가 여러 의미로 쓰이는 경우: 관형격 조사 '의/의'(평칭의 유정 체언 뒤, 모음 조화 0) VS. 부사격 조사 '의/의'(서술어와 호응,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에 쓰임, 모음 조화 0)

버미(범 + 의(평칭 유정 체언 뒤, 음성 모음 뒤, 관형격 조사)) 뼈나
[범의 뼈나]
사르미(사름 + 의(평칭 유정 체언 뒤, 양성 모음 뒤, 관형격 조사))
무레 [사람의 무리에]
무퇴(물 + 의(장소를 나타내는 체언 뒤, 음성 모음 뒤, 부사격 조사))
둔니논 [물에 다니는]
바미(밤 + 의(시간을 나타내는 체언 뒤, 양성 모음 뒤, 부사격 조사))
나디 아니흐누니 [밤에 나가지 아니하니]

| 국어사 | 정답률 74

유형 분석

문법 형태소의 형태와 의미를 다룬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문제야. 지문에서는 현대 국어의 문법 형태소와 중세 국어의 문법 형태소의 예시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니, 선지에 등장하는 예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지문에서 찾아 판단할 수 있어야 해. 언어(문법)에서 추론 문제는 독서의 추론 문제와는 달리 사실 관계를 파악하면 쉽게 정오를 판단할 수 있어. 단, 선지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문법 용어를 주의해서 정확히 읽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풀이

- ㉠ 중세 국어에서 체언에 조사 '의'가 붙은 말은 관형어나 부사어로 쓰였다.

4문단에서 '중세 국어에서는 '의'가 앞 체언에 붙어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로 쓰이기도' 한다고 했으므로, 중세 국어에서 체언에 조사 '의'가 붙은 말은 문장에서 관형어나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

오답풀이

- ㉡ 현대 국어의 '책꽂이'에서 '-이'는 '...하는 행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이다.
1문단에서 현대 국어의 명사 파생 접사 '-이'는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그 예로 "연필꽂이"에서는 '...하는 데 쓰이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했다. 이를 참고하면 '책'을 세워서 꽂아 두는 물건이나 장치'를 의미하는 '책꽂이'에 쓰인 '-이'는 '...하는 행위'의 의미가 아니라 '...하는 데 쓰이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임을 알 수 있다.
- ㉢ 현대 국어 '놀이'에서의 '-이'는 중세 국어 '사리'에서의 '-이'와 달리 '...하는 사람'의 의미로 쓰인다.
1문단에서 현대 국어 '놀이'에서 명사 파생 접사 '-이'는 '...하는 행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고, 2문단에서 중세 국어의 "-이"는 '사리(살- + -이)'처럼 동사 어간에 붙어 '...하는 행위'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했다. 이를 참고하면 현대 국어 '놀이'에서의 '-이'는 중세 국어의 '사리'에서의 '-이'와 마찬가지로 '...하는 행위'의 의미로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 ㉣ 현대 국어 '길이'처럼 중세 국어 '기리'도 명사와 부사로 쓰였다.
1문단에서 '현대 국어에서 명사 '놀이'에 쓰인 명사 파생 접사 '-이'와 부사 '놀이'에 쓰인 부사 파생 접사 '-이'라고 했고, 3문단에서 중세 국어의 명사 파생 접사 "-의"는 '-이'와 달리 부사는 파생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를 참고하면 현대 국어 '길이'는 명사와 부사로 쓰일 수 있으나, 중세 국어 '기리'는 명사로만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 중세 국어에서 접사 '-이'가 붙어 파생된 단어는 두 가지 품사로 쓰였다.
3문단에서 중세 국어의 명사 파생 접사 "-의"는 '-이'와 달리 부사는 파생하지 않'고,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이'로 쓰였'다고 했으므로 접사 '-이'가 붙어 파생된 단어의 품사는 명사 한 가지임을 알 수 있다.

| 형태소와 단어 | 정답률 80

유형 분석

이 문제의 선지는 두 가지, 즉 해당 예시가 모음 조화를 따르는지의 여부와, 그것이 어떤 문법 형태소인지를 묻고 있어. 따라서 기본적으로 <보기>의 예시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모음 조화의 개념과 중세 국어의 양성 모음·음성 모음에 대한 배경 지식도 갖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었어. 그리고 '조사'와 '접사'는 명확하게 다른 개념이므로, 반드시 문법 용어를 주의해서 정확히 읽고 판단해야 했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王시 겨트(겨 + 의) 안젓다가 [왕의 곁에 앉아 있다가]
'의': 장소를 나타내는 체언 뒤, 음성 모음 뒤, 부사격 조사
- ㉡ 曲江시 구빅(굽 + -의)에 7마니 돈니노라 [곡강의 굽이에 가만히 다니노라]
'-의': 용언 어간에 붙어 명사 파생, 음성 모음 뒤, 명사 파생 접사
- ㉢ 光明이 볼기(복 + -이) 비취여 [광명이 밝히 비취어]
'-이': 형용사 어간에 붙어 부사 파생, 모음 조화와 무관, 부사 파생 접사
- ㉣ 글지시(글짓 + -이)에 위두후고 [글짓기에 으뜸이고]
'-이': 동사 어간에 붙어 명사 파생, 모음 조화와 무관, 명사 파생 접사
- ㉤ 쓰리(쓸 + 이) 일후른 [딸의 이름은]
'이': 평칭 유정 체언 뒤, 양성 모음 뒤, 관형격 조사

정답풀이

- ㉡ ㉢에서 '구빅'의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한 부사 파생 접사 이군.

3문단에서 '용언 어간에 붙는 명사 파생 접사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이'로 쓰였'다고 한 것을 참고했을 때, <보기>의 ㉢에서 '구빅'은 어간 '굽-'이 음성 모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뒤에 명사 파생 접사 '-의'가 결합한 명사임을 알 수 있다. 즉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한 것은 맞지만 부사 파생 접사가 아니라 명사 파생 접사에 해당한다. 참고로 ㉣의 '구빅'에는 부사어 '굽이에'를 의미하며 파생 명사 '구빅'에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한 것이다.

[6~8] (가)는 인터넷 블로그이고, (나)는 텔레비전 생방송 뉴스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환경 파수꾼 '구르미'의 블로그

일몰거리 생각 나누기 자료 더하기 일상 기록

북극곰은 지구 온난화가 싫어요

구르미
2021.02.06 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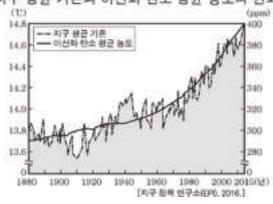
여러분은 '겨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추위? 얼음? 북극?
오늘은 다큐멘터리 '북극곰의 오늘과 내일'을 보고 든 생각에 대해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자 해요. (7-③)
지구 온난화로 북극곰의 삶의 터전이 줄어들고 있어요.



옆의 사진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북극곰의 오늘과 내일'에서는 옆의 사진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북극곰이 멸종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북극곰을 힘들게 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과 이산화 탄소 농도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7-①)

우리가 일상에서 이산화 탄소를 배출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일상에서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대체 에너지 개발하기 등이 있어요.



지구 평균 기온과 이산화 탄소 평균 농도의 변화

(T) (ppm)

--- 지구 평균 기온
--- 이산화 탄소 평균 농도

[지구 환경 연구소(IEA), 2016.]



(7-①)
이 영상은 '북극곰의 오늘과 내일' 홍보 영상인데, 다큐멘터리를 찾아서 시청하시면 북극곰의 아픔을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자료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지구_온난화 #북극곰_멸종_위기 #이산화_탄소_배출_줄이기

(6-③)

댓글 7 공감 16

사랑이 북극곰에게 미안하네요. 이제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게 좋겠죠? ①

↳ 구르미 그럼요. 저도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로 결심했어요.

초록곰 저도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www.○○○.go.kr 여기서 이산화 탄소 배출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①

↳ 구르미 방문 감사합니다. 저도 주변 분들과 공유할게요.

밤들이 대체 에너지 개발하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 구르미 감사해요. 수정할게요.

몽들이 그래프의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사진 속 작은 얼음 조각마저 사라져 북극곰은 살 곳이 없어지고 말겠어요. ㅠ.ㅠ

(7-②)

(나)



진행자: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전국에 두 달째 가뭄이 이어지면서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면서요? (7-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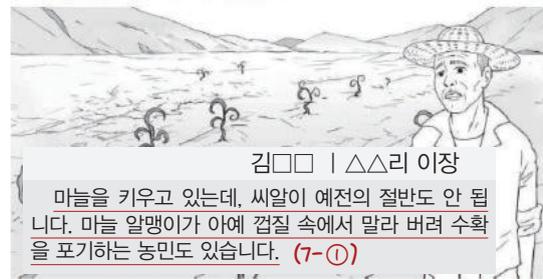
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현장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7-⑤)

윤 기자: 취재한 자료 영상을 보시면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것이 저수지 바닥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진행자: 가뭄이 이렇게나 심각하군요. 그에 따라 피해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7-④)

윤 기자: 가뭄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농민 한 분을 만나 봤습니다. 인터뷰 영상 보시겠습니다.



| 매체의 특성 | 정답률 79

6.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풀이

③ (가)는 (나)와 달리 특정 기호를 앞에 붙여 열거한 말들을 통해 전달 되는 정보의 핵심 어구를 파악할 수 있다.

(가)의 블로그 글 하단에 들어간 '#지구_온난화', '#북극곰_멸종_위기', '#이산화_탄소_배출_줄이기'를 참고하면, '#(해시태그)'와 같은 특정 기호를 앞에 붙여 전달되는 정보의 핵심 어구를 열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나)에서는 특정 기호나 열거를 통해 핵심 어구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찾아볼 수 없다.

오답풀이

- ① (가)는 (나)와 달리 정보 생산자 간에 면 대 면 소통을 통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가)에서 '밤톨이'가 달아 둔 '덧글'과 그에 대한 '구르미'의 반응을 통해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소통 및 정보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정보 생산자 간의 '면 대 면 소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정보 수용자를 고려하여 격식을 갖춘 말투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가)에서 정보 수용자를 존대하며 격식을 갖춘 말투로 정보를 제시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나) 역시 정보 수용자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여 격식을 갖춘 말투로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정보 수용자를 특정인으로 한정지어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나)에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라고 하며 정보 수용자를 영상을 시청하는 불특정 다수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정보 수용자를 '특정인'으로 한정지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정보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에서는 정보 생산자인 '진행자'와 '윤 기자'가 상호작용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통해 정보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다.

모두의 질문

• 6-①번

Q: (가)의 덧글 상 소통을 '면 대 면' 소통이라고 볼 수는 없나요?
A: '면 대 면' 소통이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소통으로, 컴퓨터나 휴대 전화와 같은 통신 기기를 통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만남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서 하는 소통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에 나타나는 덧글 상 소통을 면 대 면 소통이 이루어진 사례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듯 직접 만나지 않고도 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은 온라인 매체의 특성 중 하나이다.

| 매체의 생산과 수용 | 정답률 85

7.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텔레비전 뉴스, 인터넷 블로그 등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구체적 형태를 매체 자료라고 한다. 매체 언어는 음성,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의 양식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특성을 지닌다.(7-①) 따라서 매체 자료의 수용자는 이러한 복합 양식적인 매체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7-②) 이때 그 의미는 생산자와 수용자가 놓여 있는 맥락 속에서 생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체 자료의 수용은 생산자의 의도나 관점, 수용자의 관점이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7-④, ⑤) 이 과정에서 매체 자료의 수용자는 창의적 생산자가 되기도 하면서 사회적 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7-③)

정답풀이

⑤ (나)에서 진행자가 윤 기자에게 현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한 것은 생산자들 간에 놓여 있는 맥락이 같아도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보기>에서 '매체 자료의 수용은 생산자의 의도나 관점, 수용자의 관점이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두 달째 가뭄이 이어지면서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발언과 '취재한 자료 영상', '인터뷰 영상' 등을 통해 가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진행자와 윤 기자는 현재 가뭄이 심각하며, 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는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행자가 윤 기자에게 '현장 상황'을 묻는 것은 동일한 맥락과 관점 하에 정보를 공유하고 수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함일 뿐이며, 이를 통해 진행자와 윤 기자가 가뭄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 ① (가)에서 그래프와 동영상 등을, (나)에서 문자와 음성 등을 활용한 것은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적 특성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보기>에서 '매체 언어는 음성,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의 양식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특성을 지닌다.'라고 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가)에서 그래프와 다 큐멘터리 홍보 영상 등을 사용하거나, (나)에서 자막과 같은 문자와 음성을 활용한 것은 매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복합 양식적 특성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문제 P.118

1. ⑤

㉔(부테 숲 여르삼과 分身 브르샤맨)에서 두 개의 명사절 '부테 숲 여르삼'과 '分身 브르샤맨'은 접속 조사 '과'로 이어져 있다. 접속 조사 '과' 뒤에 나오는 명사절 속에서는 주어와 생략되어 있으나, 현대어 풀이를 통해 두 개의 명사절의 주어는 모두 '부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주어와 쓰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 ㉑(그녀는 그가 열심히 달렸음을 알고 있다.)에서는 '그가 열심히 달렸음'이라는 명사절이 쓰였는데, 이때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이 사용되었으며, 명사절에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하여 안은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 ② ㉒(도훈 여름 여름)에서 '여름'은 동사 '열-'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음'이 결합하여 품사가 명사로 바뀌었다.
- ③ 뒷글에서 '중세 국어의 명사형 전성 어미는 '-음/-움'이 있었는데,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음'이, 음성 모음 뒤에서는 '-움'이 쓰였다.'라고 하였다. ㉑의 '여름'에서 어간 '열-'의 모음은 음성 모음이므로, 모음 조화에 따라 명사형 전성 어미 '-움'이 결합하였고, 이 명사절에 격 조사 '이'가 결합하여 연결(이어적기)되었다.
- ④ 뒷글에서 '명사형 전성 어미 '-음/-움'은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으/으)샤-'와 결합된 '삼'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했다. 따라서 ㉒에서 '여르삼'과 '브르샤맨'의 '삼'에서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으/으)샤-'를 분석할 수 있다.

2. ②

뒷글에서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명사형 어미처럼 쓰이는 경우'를 ㉔(관형사형 어미의 명사적 용법)라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용법을 지닌 관형사형 어미에는 '-르'와 여기에 관형격 조사 '시' 결합한 '-라'도 존재'한다고 했다. '너퍼 돛수오미 다옴 업서'에서 '다옴'은 '다으- + -라'으로 분석되며 대응하는 현대어 풀이는 '다함'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관형사형 어미 '-르'에 관형격 조사 '시' 결합한 '-라'이 체언을 수식하지 않고 명사형 어미처럼 쓰이고 있는 것이므로, ㉔에 해당하는 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德(덕)이여 福(복)이라 호놀 나으라 오소이다.'에서 '호놀'은 'ㅎ- + -오- + -ㄴ + -을'로 분석되며 대응하는 현대어 풀이는 '하는 것을'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관형사형 어미 '-ㄴ'이 체언을 수식하지 않은 채, 마치 명사형 어미처럼 바로 목적격 조사와 결합하여 쓰이고 있으므로, ㉔에 해당하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이 사르미 어두미 어려우니'에서 '어두미'는 '얼- + -움 + 이'로 분석할 수 있고, 명사형 전성 어미 '-움'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래 사름들의게나 주실 양으로 ㅎ압쇼샤'에서 '주실'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 '-르'이 쓰여 뒤에 오는 체언 '양'을 꾸미고 있으므로, 관형사형 어미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 아니다.
- ③ '이 곁흔 어린 사르미 구즌 길헤 떠디여'에서 '구즌'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이 쓰였지만 뒤에 오는 체언 '길'을 꾸며주므로 관형사형 어미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 아니다. 한편 '帝網(제망) 구스리 重

- 重(중중)ㅎ야'에서 '구스리'는 체언 '구술' 뒤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연결(이어적기)된 것이므로, 관형사형 어미가 쓰이지 않았다.
- ④ '織女(직녀)는 뵈 ㅼ는 겨지비라 혼 마리니'에서 '혼'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이 쓰였지만 뒤에 오는 체언 '말'을 꾸며주므로 관형사형 어미의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 아니다. 또한 '비흘 싸르미 반드기 기픈 ㅼ들 불겨'에서 '비흘'은 관형사형 어미 '-르'이 쓰였지만 뒤에 오는 '사람'을 꾸며주므로, 이 역시 관형사형 어미의 명사적 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⑤ '頰(번뇌)애 더럽디 아니호미 일후미 ㅼ提(보리)오'에서 '아니호미'에는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이 쓰였고, '몽경이 보기를 길히 사름 7티 호디'에서 '보기'에는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쓰였다. 두 예시 모두 관형사형 어미는 쓰이지 않았다.

3. ③

ㄷ(바로 이 연필이 글씨가 잘 써진다.)에서 안은문장에 쓰인 부사어는 '바로'인데,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 연필'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바로'가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서술절 전체를 꾸며주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 ㄱ(저 숲은 나무가 많다.)에서 안은문장의 주어는 '숲은'이고, 서술절의 주어는 '나무가'이므로, 의미적으로 '전체-부분'의 관계를 형성한다.
- ② ㄴ(이 지역이 벼농사가 잘된다.)에서 안은문장의 주격 조사 '이'를 부사격 조사 '에서'로 바꾸면 '이 지역에서 벼농사가 잘된다.'가 되므로,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 된다.
- ④ ㄹ(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수염이 있으시다.)에서 서술절의 주어인 '수염'은 안은문장의 주어인 '할아버지'의 신체 일부라 할 수 있다. 이때 서술절에 쓰인 선어말 어미 '-샤-'는 높임의 대상인 '할아버지'와 관련된 '수염'을 높임으로써 안은문장의 주어인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기능을 한다.
- ⑤ ㄹ(전교에서 우리 반이 국어가 평균이 가장 높다.)을 주어와 서술어로 분석하면 크게 '{우리 반이(주어1) + [국어가 평균이 가장 높다.](서술어1)}'로 분석되는데, 이때 '서술어1'은 서술절에 해당하며, 이를 다시 {국어가(주어2) + [평균이 가장 높다.](서술어2)}로 분석할 수 있다. 이때 '서술어2' 역시 서술절에 해당하며, 이 부분을 다시 '평균이(주어3) 가장 높다.(서술어3)'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ㄹ은 서술절이 두 번 쓰였으며,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는 총 세 번 나타난다.